

탄생 200주년 맞는 푸시킨의 작품세계

열린책들 《알렉산드르 푸쉬킨 전집》, 솔 《푸쉬킨》 동시 출간



‘우리의 모든 것은 푸시킨에게서 나왔다’. ‘푸시킨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1백년 이상의 시간차가 나는데도 결국 동어반복에 머물 수밖에 없는 도스토예프스키와 보리스 엘친의 이 찬사는 러시아에게 푸시킨이 어떤 존재인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오는 6월 6일은 우리에게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와 소설 〈대위의 딸〉로 친숙한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태어난 지 2백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알렉산드르 푸쉬킨 전집》(전6권·열린책들)과 《푸쉬킨》(전3권·솔)이 함께 출간됐다.

《알렉산드르 푸쉬킨 전집》은 모두 1800면

에 달하는데, 열린책들은 이를 전문가용과 일반인용으로 나눠 펴냈다. 1권으로 나온 전문가용 양장본에는 자세한 작가 소개, 연보, 주석이 곁들여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소장용 전집의 역할을 한다. 장르별로 나눈 일반인용 단행본은 《대위의 딸》(장편소설)·《예브게니 오네긴》(운문소설)·《벨킨 이야기》(소설집)·《청동 기마상》(장편서사시집)·《잠 안 오는 밤에 쓴 시》(시선집)·《보리스 고두노프》(희곡집) 등이다. 열린책들은 일부 제외된 초기 서정시와 미완성 작품, 서간문을 차후 별권의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6여년의 작업 끝에 전집을 번역한

석영중 교수(고려대 노문과)는 “그간 푸시킨의 평이하면서도 섬세한 언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중역본의 한계를 뛰어넘어 순우리말로 고풍스러운 어휘들을 적절히 혼합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푸시킨이 지닌 현대성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한다.

솔에서 나온 《푸쉬킨》은 정본으로 꼽히는 ‘소비에트 과학아카데미 판본’을 번역대본으로 해 박형규 교수(전 고려대) 등 모두 6명의 러시아문학 전공자들이 번역에 참여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는 121편의 서정시와 7편의 서사시를, 《예브게니 오네긴》에는 표제 운문소설과 희곡 〈보리스 고두노프〉·〈모짜르트와 살리에르〉 등을, 《대위의 딸》에는 표제작을 비롯한 중단편 소설을 담았다.

러시아의 국민작가로 추앙받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고골·투르게네프·도스토예프스키·마야코프스키 등 러시아의 문학가들 뿐만 아니라, 차이코프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 등의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다. 1799년 태어나 1837년 죽을 때까지 서정시·장편서사시·희곡·민담·소설·평론·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보편성’을 보여줬다. 이는 고전주

의적인 엄격함, 낭만주의적인 열정, 사실주의적인 필진성 등 19세기 당시 유럽의 다양한 세계관에 영향받았지만, 러시아적인 전통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푸시킨은 약 20년 동안의 창작기간에 700여 편에 이르는 서정시, 〈투슬란과 류드밀라〉 같은 의사 영웅시, 바이런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소위 〈남부 뽀에마〉, 희극적인 뽀에마 〈놀린 백작〉, 영웅 서사시 〈뿔따바〉, 민담 〈황금 수탉 이야기〉, 단편 〈스페이드의 여왕〉, 단편모음 〈고 이반 페뜨로비치 벨킨의 이야기〉, 장편 〈대위의 딸〉, 희곡 〈보리스 고두노프〉, 역사물 〈뽀가초프 반란사〉 등을 남겼다. 사치가 심한 아내 이탈리아와의 불행한 결혼생활로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글을 써야만 했던 푸시킨은 결국 아내와 염문설이 나돌던 프랑스인 단테스에게 결투를 신청했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

어린 시절, 당대 최고의 시인에게서 ‘기적을 만드는 소년’이자 ‘우리 문학의 희망’이라는 격찬을 받았으나, 결투로 죽을 즈음에는 평론가들로부터 ‘채능이 퇴화했으므로 그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 사람의 삶은 더없이 짧고 문학의 삶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 김연수 기자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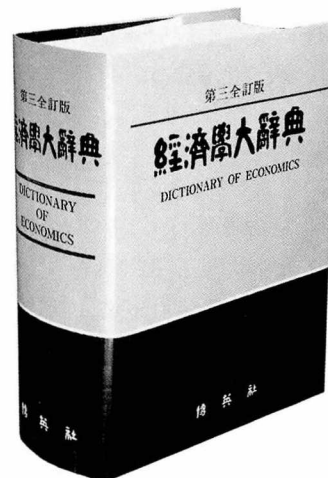
현대 경제학의 성과 집대성한 경제학 사전의 결정판 《경제학 대사전》 제3전정판 발간

현대 경제학은 전통적인 ‘밥’과 ‘생계’의 경계를 탈주해 ‘철학’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 19세기 마르크스주의의 비주류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의 아성에 도전하고 제국주의의 지배가 제3세계 반주변부의 저항에 부딪치면서 더 이상 경제학은 민중과 계급의 문제를 도의시킬 수 없게 되었다. 경제학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경제학자들은 그만큼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었다. 현대 경제학은 주류와 비주류가 서로 간섭·침투하면서 탄력성을 회복해왔다.

만 4년의 각고 끝에 제3전정판으로 종합된 《경제학 대사전》은 이러한 현대 경제학의 흐름

을 대변한다. 1964년 초판이 발간된 이 사전은 복잡한 경제사회의 생리를 해부하고 동적인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살렸다. 경제학 일반부터 마르크스경제학, 경제사문제까지 방대한 영역을 아울렀으며 100여명의 경제학자들이 편집위원이나 집필자로 참여해 한국 경제학계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했다.

기존의 8천3백여 항목 중 1천3백여 항목을 삭제하고 4천5백여 항목을 대폭 수정해 역동적인 경제현실을 담았다. 특히 대중을 고려하지 못한 과거의 현학적 문체를 짚고 쉬운 문장으로 수정해 가독성을 높였다. 예컨대, ‘유



효수요이론’을 설명하는 항목에서는 “기업가의 이윤총액을 극대로 하는 고용규모로서, 사회적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을 가리킨다”는 식으로 명쾌하게 해설한다.

또한 소·중항목과 대항목을 같이 쓰되 특히 종합적·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한 항목

은 대항목으로 나눠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사’ 항목에서는 독일·러시아·미국·일본·중국·한국의 노동운동의 소항목으로 나눠 그 역사적 배경과 성과 및 한계를 12쪽에 걸쳐 해설하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경제사 측면을 대폭 보완하고 한국경제학 정립에 관한 학계의 성과도 집대성했다.

이 사전의 가장 빛나는 부분은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학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경제학과 생태학이 환경 및 생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는 한계를 비판한, 다학제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생태계와 경제체계의 관계를 새롭게 종합적으로 고찰하려는 학문조류”라고 설명한 ‘생태경제학’ 항목에서 그 비근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박영사/B5/3309면/180,000원